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칼럼)-연준의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은?
- ◇ (초점)-보험사 해외투자 한해지 규제완화
고민하는 당국..'IFRS9' 등 난제 해결 속제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사실상 휴교 상태인 미국 샌디에이고대학교 구내에 거북이가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다. (로이터/마이크 블레이크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5월15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231.0	-0.9%	-6.1%	-3.5%	유로	1.0815	-0.2%	-3.5%	-2.3%
100엔 대비	1,151.5	-0.7%	-7.7%	-4.4%	엔	107.02	-0.3%	1.5%	0.9%
유로 대비	1,333.2	-0.8%	-3.0%	-1.3%	위안	7.0940	-0.1%	-1.8%	-1.3%
위안 대비	173.54	-0.7%	-4.5%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3,685.42	-2.7%	-17.0%	22.3%
코스피	1,927.28	-1.0%	-12.3%	7.7%	나스닥	9,014.56	-1.2%	0.5%	35.2%
코스닥	691.93	1.4%	3.3%	-0.9%	S&P500	2,863.70	-2.3%	-11.4%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466.70	-1.1%	-15.6%	15.8%
국고채 3Y	0.874%	-4.0bp	-48.6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118%	-4.8bp	-36.2bp	-40.4bp	미국채 2Y	0.151%	-1.0bp	-141.0bp	-93.7bp
국고채10Y	1.383%	-4.3bp	-30.0bp	-26.5bp	미국채 10Y	0.644%	-4.0bp	-126.6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29.43	19.0%	-51.8%	34.5%	한국 5Y	32.3bp	-0.9bp	11.2bp	-17.0bp
금(현물)	1,741.00	2.4%	14.8%	18.3%	일본 5Y	38.0bp	0.0bp	20.3bp	-4.0bp
TR상품지수	2,140.34	2.1%	-13.9%	4.8%	중국 5Y	52.5bp	5.0bp	21.8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5월 18일(월)>

-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9일(화)>

- 특이일정 없음

<20일(수)>

- 한은, 4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12:00)
- 한은, 1/4분기중 가계신용(잠정)(12:00)
- KDI 경제전망 및 현안분석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거시경제 경로 전망'(12:00)

<21일(목)>

- 한은, 4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 기재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8:00)
- 관세청/산업부, 5월 1-20일 수출입 동향
- 한은, 3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12:00)
- 통계청,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22일(금)>

- 일본, 4월 소비자물가지수(08:30)
- 유로존, 5월 마켓제조업·서비스업 PMI (17: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5월 18일(월)>

- 일본, 1분기 국내총생산(08:50)
- 중국, 4월 주택가격(10:30)

<19일(화)>

- 일본, 3월 산업생산(13:30)
- 미국, 4월 건축허가 (21:30)
- 미국, 4월 주택착공 (21:30)
-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 상원 은행위원회 증언(23:00)

<20일(수)>

- 일본, 5월 로이더 단칸 DI(08:00)
- 일본, 3월 기계류 주문(08:50)
- 유로존, 3월 경상수지(17:00)
- 유로존, 3월 소비자 신뢰지수(23: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20:00)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공개(03:00)
- 중국, 5월 대출우대금리(10:30)

<21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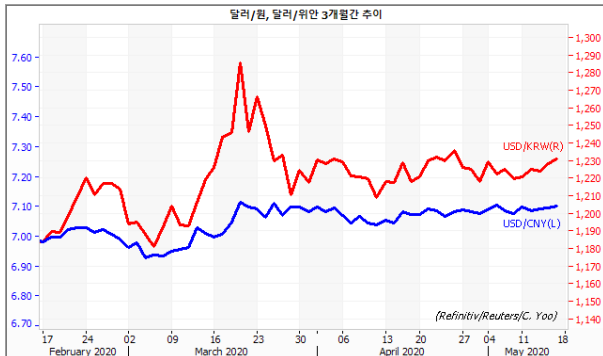
- 일본, 4월 수입·수출 (08:50)
- 일본, 4월 무역수지 (08:50)
- 일본, 5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09:30)
- 미국, 5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 (21:30)
- 미국, 5월 11일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21:30)
- 미국, 5월 마켓제조업·서비스업 PMI (22:45)
- 미국, 4월 기존주택판매 (23:00)
- 독일, 프랑스 휴장

<22일(금)>

- 일본, 4월 소비자물가지수(08:30)
- 유로존, 5월 마켓제조업·서비스업 PMI (17: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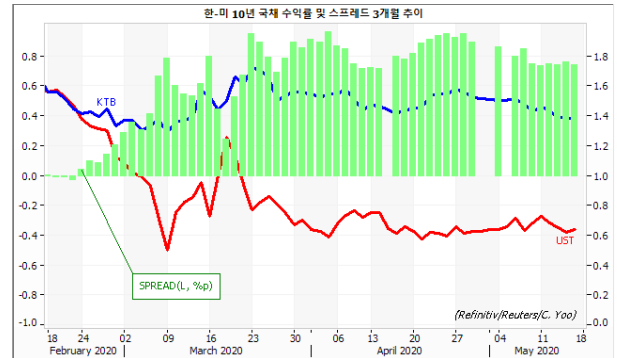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과 중국 간 대립 관련 헤드라인에 따라 출렁이는 변동성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20-1245 원이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이후 주요국이 경제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고 이에 따른 기대감이 국내외 금융시장을 떠받치는 듯 했지만, 미국이 코로나 19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연일 강조하면서 시장은 가장 취약한 재료인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됐다.
-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외국 기업의 경우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화웨이에 대한 미국 조치에 반대하며 중국 기업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슨 조치라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양국 간 1 단계 무역 합의와 코로나 19 때문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미-중 무역 전쟁 재료가 다시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요 모멘텀으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 이번 주중에는 미국과 유럽의 5월 제조업 PMI와 더불어 이달 20일까지 국내 수출 잠정치 발표가 예정돼 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4월 통화정책 회의 의사록도 나온다. 아울러 오는 21일부터는 중국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도 예정돼 있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와 정부 부양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미국 국채 공급 부담과 국내 채권의 레벨 부담이 반영되며 제한적 약세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 외국인의 대규모 국채 선물 매수 공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채권금리가 연중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 FX 스왑과 단기 크로스 시장의 안정 속에 외국인의 대규모 재정거래가 유입되며 스왑 베이스도 코로나 19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한 80bp 대 내외에서 움직이는 상황이다.
-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정상화 베팅을 하기에는 워낙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 간 코로나 19 책임 논란이 무역 분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인 데다 이른 경제재개에 따른 2차 유행 우려도 있다.
- 스왑 베이스가 한걸음에 위기 이전 수준인 60bp 대까지 가기보다는 일단 현재 수준에서 흐름을 가다듬으려 할 수 있다.
- 크로스 금리가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관망세도 커질 수 있다. 최근 확연히 줄어든 보험사 에셋 스왑이 언제부터 재개될 것이냐도 관건이다.
- 이자율스왑(IRS) 금리 역시 추가 오퍼에는 좀 더 신중해질 수 있는 시점이다. 3개월 CD 금리가 추가 하락할 수 있느냐 여부도 중요할 듯하다.

(칼럼)-연준의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은?

(※이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런던 (로이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리스크는 시장이 연준의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의미한다.

지난 6일 미국 금리선물시장은 연준이 내년 중반까지 금리를 마이너스로 인하할 가능성을 처음 반영했다.

이런 가운데 12일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비 0.3%까지 둔화돼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준 기준금리 0~0.25%보다 아주 약간 높은 수치다.

연준이 경제 회복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준 관리들은 빠른 속도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부정적 의견들을 쏟아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12일 당분간 금리가 제로 부근에 머물 것이라면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에서 사용할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미국의 단기 편딩 시장 구조가 일본이나 유럽과는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이나 유럽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성공적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우리는 다른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3일 "위기가 지나가고 경기 회복세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우리가 가진 수단들을 최대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기에는 마이너스 금리는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마이너스 금리는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의 주된 우려 요인은 마이너스 금리가 은행 시스템이 끼칠 부정적 영향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2014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이후 유로존에 비슷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때문에 ECB는 코로나 19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더 내리진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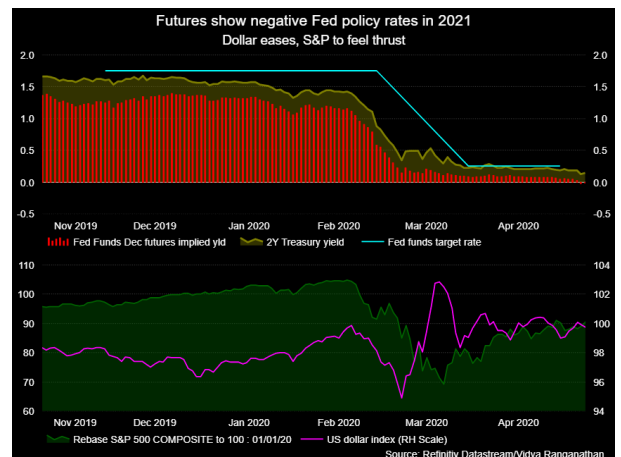
다른 우려는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이다.

저축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줄고 이자도 줄면 결국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너무 빨리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을 일축한 게 아니냐고 말한다. 미국 경제가 불황을 피하고 부채 부담도 완화되려면 예외적인 조치들이 필요하고 마이너스 금리도 하나의 옵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켄 로고프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미국 경제가 코로나 19 충격으로부터 빨리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생산 수준이 회복되려면 수년이 걸릴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한다.

그는 -3%나 그 이하의 마이너스 금리가 기업 및 도시들의 디플트를 막을 수 있으며 수요 증진과 고용 확대를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 켈리 파인브릿지인베스트먼트 투자팀장은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연준이 그렇게 할지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연준이 채권 시장 실질 금리가 -1% 정도 되는 것에 의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점)-보험사 해외투자 환해지 규제완화 고민하는 당국..IFRS9 등 난제 해결 속제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대폭 늘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금융·외환 당국도 보험사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화자금시장 영향을 가늠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국은 보험사가 자율적인 환 해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지난 2018년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9)에 따라 환 해지 없이 이뤄진 해외투자가 당기손익금융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 최대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당국, 보험사 해외투자 환 해지 규제 완화 관심.. 사전 정지작업

지난달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보험사가 환 해지를 하지 않고 외화증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급여력제도(RBC) 비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스왑 레이트가 역전된 상황에서 과도한 환 해지가 보험사의 수익률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외화 차입 확대에 따른 대외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지적이었다.

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기획재정부와의 교감 아래 발표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보험사의 환 해지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서 기재부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당국 관계자들도 현재 보험사 해외투자 환 해지 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가 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당국의 규제 완화 논의 속도를 올릴 전망이다. 기존에는 보험사들 일반계정의 외화자산 투자 한도가 30%, 특별계정은 20%로 제한됐지만, 규정 개정으로 두 계정 모두 한도가 50%까지 늘어나게 됐다.

한화생명 등 운용자산 대비 외화 유가증권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일부 보험사의 경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외화자산 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올해 연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시장에선 당장 보험사의 해외투자가 급격히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외화증권 투자의 원화 환산 수익률이 하락해 원화채 대비 투자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의 스왑 프리미엄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사의 해외투자가 일정 부분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이를 감안할 때 환 해지를 하지 않는 투자에 대한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규제 완화가 논의될 여지가 있다.

외환 당국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의 환 해지를) 일정 부분만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환 해지를 하지 않을 때 주는 페널티 규모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보험사의 해외투자 확대 시행 시기가 하반기인데 아직 30%를 다 채우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고 지금이 해외투자를 늘리기에 적절한 시점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상황이라 아직 시간 여유는 있다"고 말했다.

▲환 해지 규제 완화, 시가평가 당기손익 평가·보험사 역량 문제 등 난관 적지 않아

하지만 당국이 보험사 해외투자와 관련한 환 해지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고 해도 당장 보험사들이 해지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특히 지난 2018년 도입된 IFRS9 영향으로 환 해지를 하지 않는 보험사 자산이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는 점이 가장 큰 난관이다. 환 해지를 하지 않는 자산이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되면 시가평가에 따른 손익 변동성이 커질 때 보험사가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다.

A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환 헤지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 대만이나 일본의 경우 처음에 당국이 IFRS9 신청을 할 때 환 헤지 포지션을 당기손익계정으로 돌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는 처음부터 환 헤지를 하지 않는 자산을 당기손익계정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걸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 등이 환 헤지를 하지 않고 해외 투자를 하는데 단기 손익 변동을 포트폴리오 효과로 막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국민연금이 주식과 채권 등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환 포지션을 다 섞어 역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반면에 보험사는 포트폴리오가 거의 다 채권이라 액티브한 운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자산 운용 역량 문제도 제기된다. 논의대로 규제가 완화된다면 지금보다 더욱 역동적으로 환 헤지 전략을 써야 하는데 그럴 조직과 인력을 보험사들이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한다고 보험업계에서 당장 환 헤지를 확 줄일지 의문"이라며 "보험사는 단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적고 장기채권을 보유하다 보니까 환을 오픈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만큼 전문적인 운용조직을 구축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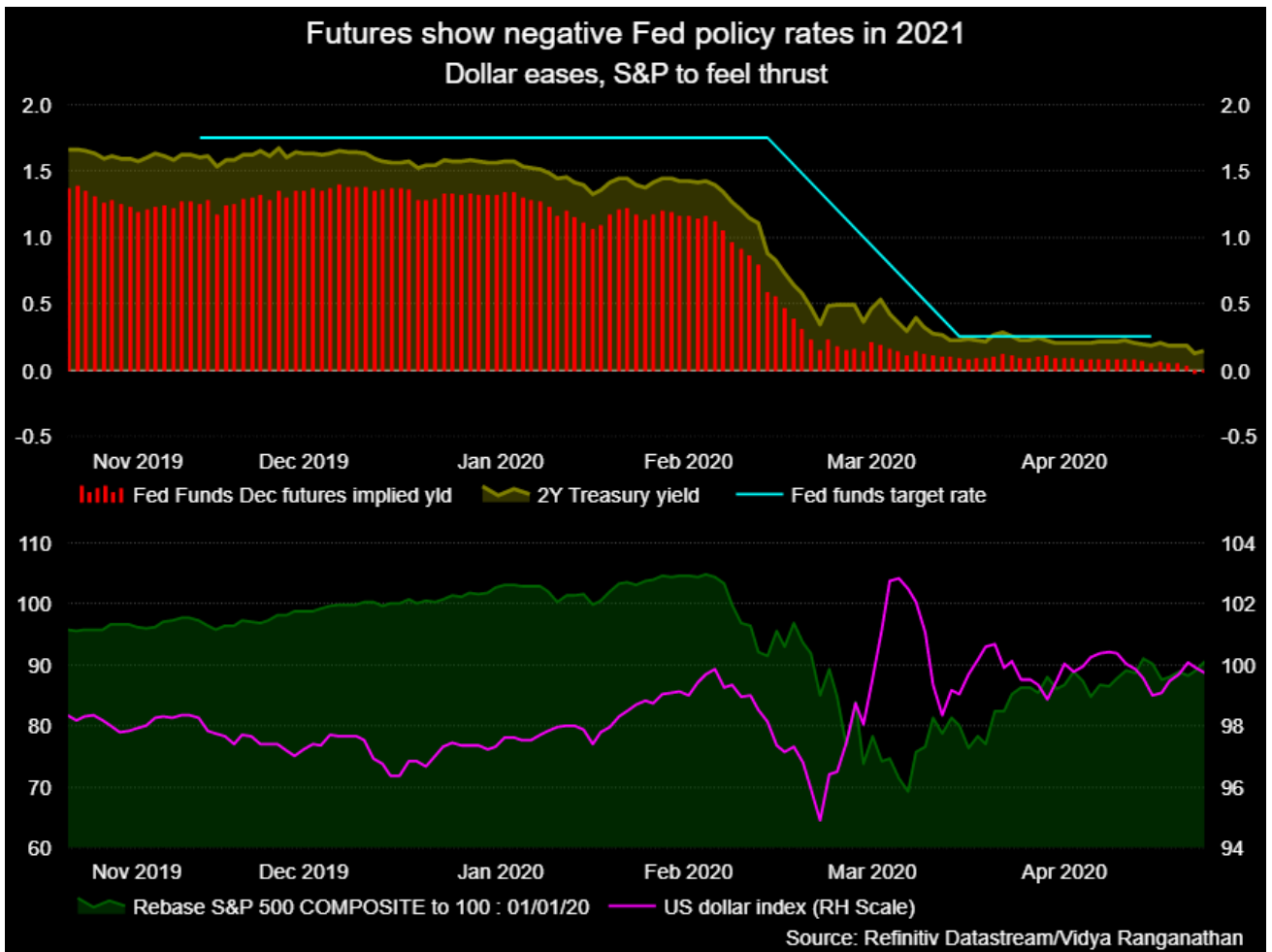
하지만 제도가 환 헤지를 풀어주는 쪽으로 변하게 될 경우 보험사의 운용전략 역시 정교해지고 전문성을 띠게 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B 보험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방향이 보험사의 환 헤지를 풀어주는 쪽으로 잡히면 보험사에는 그만큼의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라며 "역량이 있는 보험사는 준비해 실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하지 않을 텐데 보험사의 선택을 예단해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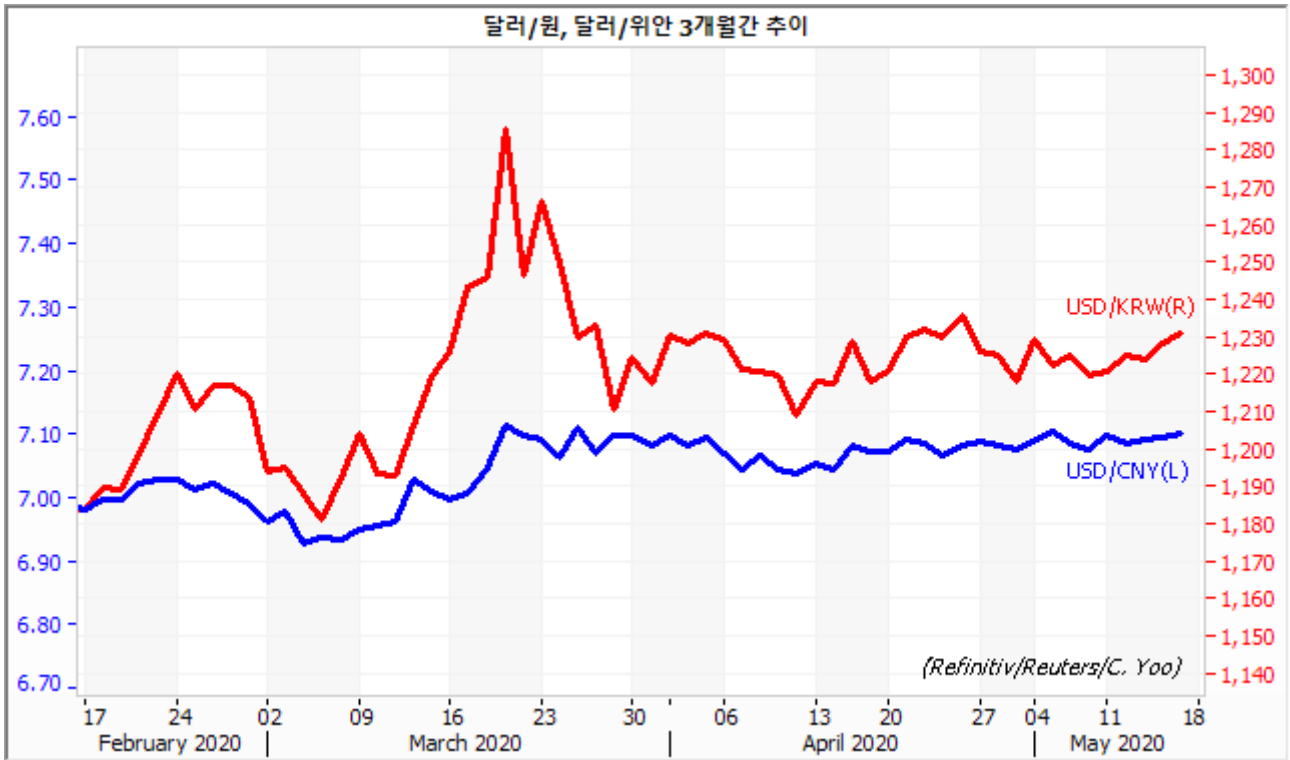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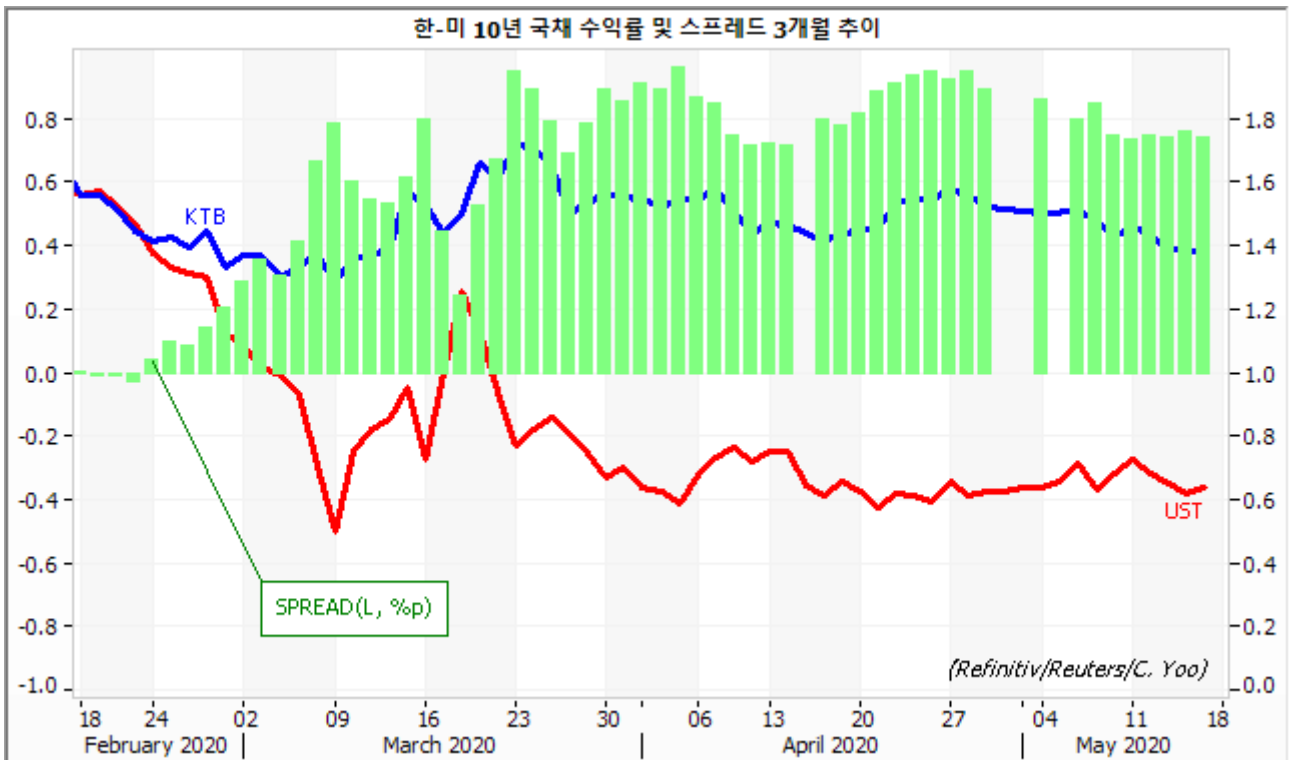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